

# 《古今韻會舉要》의 入聲字考察

-喉塞韻尾/-ʔ/의 再檢討-

王 玉 枝\*

## < 目 次 >

I. 序言	10. 藥鐸韻
II. 本論	11. 陌麥昔韻 12. 錫韻
1. 屋韻 2. 沃燭韻 3. 覺韻	13. 職德韻 14. 緝韻
4. 質術禡韻 5. 勿迄韻	15. 合盍韻 16. 葉帖業韻
6. 月沒韻 7. 曷末韻	17. 洽狎乏韻
8. 黠轄韻 9. 屑薛韻	III. 結論 < 參考文獻 >

## I. 序言

文字는 일반적으로 言語를 기록하여, 意思를 표현하는 圖形符號이다. 즉, 書面言語인 것이다.

中國文字는 近代 殷商(B.C. 17C - B.C. 11C)의 遺物인 甲骨文字의 發見으로 인해 殷代보다 훨씬 前時代에 이미 文字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 경남대학교 중문학과 강사  
본고는 필자의 碩士學位 論文 <『古今韻會舉要』와 『廣韻』의 入聲字 比較研究> (1989)중 <古今韻會舉要>의 入聲字부분을 修訂補完하여 재검토한 것이다.

또 林尹은 <文字學概說>에서 黃帝時代(B.C. 26C)에 文字가 이미 發生形成되어 왔다고 하였다<sup>1)</sup>. 한 마디로 中國文字의 歷史는 아주 悠久하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中國文字는 「表意文字」(IDEOGRAPH), 「孤立文字」이기 때문에, 글자의 音을 나타내기에는 장애가 따른다. 다행히 反切, 聲調의 발견으로 韻書가 產出하게 되어 그나마 古代語音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言語는 自然理致에 依해 人類社會의 形成과 社會生活의 變化에 따라 形成發展된다. 唐代末頃 755년에 일어난 安史의 亂은 貴族階層이 무너지고, 宋代 士大夫, 庶民社會를 열게 됨에 이어 宋代末期에는 語音이 이미 커다란 變化를 일으키고 있었는데 反해, 字音을 어느 정도 다루고 있는 韻書는 統一의이고 固定的인 形式을 유지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傳統形式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韻書에 비해 <古今韻會舉要>는 독특한 二重體系를 이루어 새로운 語音體系를 반영하였고, 語音의 變化를 暗示하였다. 사실 <中原音韻>과 함께 宋末, 元初의 語音을 잘 反映한 아주 귀중한 資料이나, <蒙古字韻><sup>2)</sup>과 더불어 <中原音韻>처럼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 채, 소홀히 여겨 왔다가, 현대에 이르러 再評價 받기 시작하여 中國大陸, 臺灣은 물론 韓國에서도 1989년 本人의 碩士論文인 <『古今韻會舉要』 및 『廣韻』의 入聲字 比較研究>에 이어 1995년에는 權赫竣선생의 <『古今韻會舉要』의 音韻體系研究>라는 博士論文이 나왔다.

더구나 韓國에 있어서도 歷史以來 최초로 漢字音을 한글을 빌어 注音하고, 또 한글 創刊을 解例한 <訓民正音>(1443年 創制)과 雙璧을 이루는 <東國正韻><sup>3)</sup>(1447年 刊行)序文에는 <古今韻會舉要>와 關係를 짓는 뚜렷

1) 林尹, <文字學概說>, 14쪽 참조.

2) <蒙古字韻>은 八思巴文字로 漢語語音을 표기한 韻書이다. 그리고, 漢語語音을 「拼音文字」로 처음 표기한 韻書이다. (王玉枝, <『蒙古字韻』의 製作과 有關韻書>, 77 - 78쪽 참조.)

中國, 蘇聯, 및 日本에서는 研究가 이루어져 왔으나, 韓國에서는 本人이 1993年과 1994年에 安奇覺教授와 文璇奎教授님의 指導下에서 中國人文科學研究會에다 투고한 <『蒙古字韻』의 製作과 有關韻書>와 <『蒙古字韻』의 音韻體系에 關한 研究> 등 두 篇의 小論文에 限한다.

3) <東國正韻>은 본래 俗音을 反映시키려는 경향보다 中國韻書體系를 重視함으로

한 말은 없지만 《世宗實錄》의 「以諺文譯韻會」<sup>4)</sup>라는 말귀에서 그 關係를 찾아 볼 수 있으며, 게다가 최근 兪昌均 또는 李東林이 각각 《古今韻會舉要》를 底本으로 《東國正韻》二, 三, 四, 五卷을 復原한 것<sup>5)</sup>을 보더라도 韻學을 復古시키려는 趣旨은 《洪武正韻》과 같지만, 內容面에서는 사실은 《古今韻會舉要》를 基盤으로 하고 있다고 可히 말 할 수 있다. 《古今韻會舉要》가 重要性을 인정받지 못한 점은 《東國正韻》이 오랜 세월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점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過去의 平上去入 四聲中 平聲이 陰陽으로 分化되어 上去와 함께 現在의 四聲을 이루게 되었는데, 단지 入聲만이 消滅됨으로 말미암아 過去의 音韻學者들이 入聲의 變遷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見解의 差異를 보이고 있는 實情이므로 本稿에서는 《古今韻會舉要》의 聲調中에서 入聲을 研究範圍로 定했다.

研究方法에 있어서는 本稿를 總 三章으로 나누어, 一章의 序言에 이어 二章은 本稿의 中心部分으로서, 여기에서는 碩士學位論文에서 研究分析하였던 結果만을 取하여 再檢討한 후, 三章에서는 結論을 내리려고 한다.

## II. 《古今韻會舉要》의 入聲字

《韻會》<sup>6)</sup>의 入聲字는 역시 平水劉淵의 《壬子新刊禮部韻略》에 의하여 17韻部로 나누었다<sup>7)</sup>. 그리고 또 韓道昭의 《五音集韻》을 따라서 聲母組別로 同韻字의 순서를 배열하였다<sup>8)</sup>.

---

서 學者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當時 韓國音에는 濁音 ㄱ, ㄷ, ㅂ, ㅍ 등이 없었지만 中國韻書에 따라 全清, 次清, 全濁, 不清不濁으로 억지로 구분하였던 것이다. (《東國正韻》, 587쪽 참조.)

4) 建國大學校, 《東國正韻》 解題, 580쪽 참조.

5) 《東國正韻》, 581쪽 참조.

6) 앞으로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古今韻會舉要》의 簡稱으로 사용함.

7) 張世祿, 《廣韻研究》, 255쪽 참조.

8) 竺家寧, 《古今韻會舉要的語音系統》, 7쪽; 董同龢, 《漢語音韻學》, 201쪽 참

이 韻書는 傳統韻書를 답습한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韻書의 內面을 자세히 分析해 보면 元代의 實際語音體系를 나타내고 있다. 韻書에서 말하는 「以上屬某字母韻<sup>9)</sup>」은 바로 當時의 實際語音의 新體系라 하겠다.

張世祿은 <古今韻會舉要>는 <五音集韻>과 <平水韻>을 踏襲한 것이라, 音韻上에 있어서는 實際的인 創見이 없다고 하였는데<sup>10)</sup>, 그는 이 중요한 韻書를 意識하지 못했음이 事實이다.

그러나, 王力은 黃公紹의 <古今韻會>에는 塞音韻尾/-k/, /-t/를 수록한 入聲字는 보존하고, 塞音韻尾/-p/를 수록하고 있는 入聲字는 이미 塞音韻尾/-t/를 수록하고 있는 入聲에 併合되었다. 元代 <中原音韻>의 「入派三聲」 이전에는 塞音韻尾/-p/, /-t/, /-k/ 등은 모두 喉塞韻尾/-ʔ/로 변하여, 喉塞韻尾로 사용한 단계가 있었으며, 그 단계는 아주 짧았다고 하였다<sup>11)</sup>. 그리고 董同龢와 謝雲飛는 모두 마치 「낡은 병에 새 술을 담은 격이다」라고 하며, 當時(元代) 實際語音을 내포하고 있어, 中國音韻史上 대단히 價値가 있는 韻書이라고 하였다<sup>12)</sup>.

결국 <古今韻會舉要>는 <切韻>系語音體系에서 <中原音韻>系語音體系까지를 理解하는데 있어 重大한 資料이자, 또한 固有入聲인 「平上去入」에서 「入派三聲」으로 넘어가는 過渡期의 좋은 資料임에 틀림없다.

宋代 가장 두드러진 變化現象은 貴族社會가 완전히 몰락하고, 그 대신 士大夫 庶民社會가 전개되어, 都市의 發達, 經濟의 膨脹, 手工業과 商業의 發達 및 海上貿易, 그리고 貨幣經濟등의 發達과 商業政策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大衆社會를 이루었다.

그러나 文人들은 여전히 宋代文學의 主流인 詩, 詞를 中心으로 하였다. 이러한 現實社會와 文人의 矛盾된 狀況은 <韻會>의 독특한 內, 外 二重

조.

9) 黃公紹, 熊忠이 옛 語音體系를 打破하여, 內面에서 새롭게 體系를 改定했으므로, 韻部의 名稱을 또 「字母韻」으로 바꾸었다.

10) 張世祿, <廣韻研究>, 257쪽 참조.

11) 王力, <漢語史稿>, 134쪽 참조.

12) 董同龢, <漢語音韻學>, 191쪽 - 192쪽 참조.

體系를 만들어 내었다. 韻部の 表面에 드러난 外的體系에 대하여, 「字母韻」은 韻部를 實際語音의 異質에 의하여 구분한 內的體系라고 할 수 있는 바 즉, 外的體系 17韻部는 實際語音을 反映한 內的體系인 29字母韻으로 나누어진다. 곡 (1)穀 (2)菊 (3)各 (4)覺 (5)脚 (6)爵 (7)郭 (8)鑿 (9)克 (10)黑 (11)訖 (12)吉 (13)櫛 (14)鬪 (15)油 (16)橋 (17)聿 (18)類 (19)格 (20)號 (21)恒 (22)葛 (23)夏 (24)訐 (25)結 (26)括 (27)刮 (28)厥 (29)玦 등이다.

요컨대, 《韻會》의 內的體系인 入聲29韻은 外的體系인 入聲17韻을 서로 併合하거나, 하나의 韻을 分離하였는데, 《韻會》의 傳統體系인 17韻部와 새로운 體系인 29字母韻의 關係를 살피고, 分析해 보면 아래와 같다<sup>13)</sup>.

### 1. 屋韻

谷哭禿讀卜僕木福副<sup>14)</sup>伏目緘簇速屋斛祿 → 穀/-u?<sup>15)</sup>

菊鞠鞠廬肅祝竹琚蕃菽逐肭(늘: /-t/韻尾字)孰或畜育六肉 → 菊/-iu? /

屋韻/-uk/(合口洪音)의 모든 聲母가 穀字母韻/-u?/(合口洪音 喉塞韻尾)로 변화되었으며, /-juk/(合口細音)의 모든 聲母는 菊字母韻/-iu?/(合口<sup>16)</sup>細音 喉塞韻尾)으로 변화되었다.

13) 韓國 亞細亞文化社에서 影印한 《古今韻會舉要》를 底本으로 삼는다. 이 韻書는 Sweden Uppsala에서 韓國學을 하는 Staffan Rosen이란 사람이 서신으로 이 운서를 출판하고자 하는 계의를 亞細亞出版社에다 해 음으로 출판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이 者의 解題가 들어 있다.

쓰家寧은 《古今韻會舉要的語音系統》에서 「字母韻」의 例字를 選定하는데 있어 「同韻同音字」를 중복해서 쓸 뿐 아니라, 또 옹당 언급해야 하는 「同韻異音字」에 대해서는 例를 들지 않았다. 本稿에서는 「同韻異音字」를 거의 모두 例字로 삼았다. 또한 碩士學位 論文의 例字와도 다른 字가 간혹 있는데 이것은 同音字에서 「難易字」를 忌避하고, 「容易字」로 바꾼 것이다.

14) 우리는 흔히 한글의 「ㅂ, ㄹ, ㄱ」 등 받침이 있는 글자를 韻尾/-p/, /-t/, /-k/를 지닌 入聲字로 보지만, 단지 한글만으로 모든 中國의 入聲字를 看破할 수는 없다. 「副(부)字」는 韓國漢字音에서는 入聲音이란 성질을 찾아 볼 수가 없으나, 中國中古音에서는 이 「副字」는 /-k/韻尾를 가지는 入聲字이다.

15) 《韻會》 29字母韻의 音價는 쓰家寧이 推定한 것을 따르고, 17韻部の 音價는 董同龢가 推定한 中古音을 따른다.

16) 《「古今韻會舉要」와 「廣韻」의 入聲字 比較研究》(成均館大學校碩士學位論文, 1989년)에서 「開口」로 되어 있는데, 이를 「合口」로 정정.

2. 沃燭韻<sup>17)</sup>

告酷篤毒不僕沃 → 穀/-uʔ/

拳曲局玉足促粟續燭觸束贖蜀旭鵠欲錄辱 → 菊/-iuʔ/

沃韻/-uok/(合口洪音)의 모든 聲母는 역시 穀字母韻/-uʔ/(合口洪音 喉塞韻尾)으로 변화되었고, 燭韻/-juok/(合口細音)의 모든 聲母는 菊字母韻/-iuʔ/(合口<sup>18)</sup>細音)으로 변화되었다.

3. 覺韻

角確學 → 覺/-ouʔ// -oʔ/

獄剝璞暴邈握 → 各/-auʔ/

捉卓朔濁擗 → 郭/-uoʔ/

覺韻/-ɔk/(開口洪音)의 牙, 喉音은 覺字母韻/-ouʔ/<sup>19)</sup>(開口洪音 喉塞韻尾)으로 변화하였으며, 舌上, 重脣中心의 音은 各字母韻/-auʔ/(開口洪音 喉塞韻尾)으로 변화하였고, 舌上, 正齒中心의 音은 또 郭字母韻/-uoʔ/(合口洪音 喉塞韻尾)으로 변화하였다.

4. 質術櫛韻

吉詰佶 → 吉/-iʔ/

必匹泌密七悉質窒叱失實乙一逸栗口 → 訖/-iʔ/

聿 → 聿/-yʔ/(喻母字)

櫛瑟 → 櫛/-ɪʔ// -ʔʔ/

筆弼密 → 國/-ueʔ/(曉母以外)

橘茁汨卒竣 → 橘/-yʔ/(喻母字以外)

17) <韻會>는 물론 다른 韻書에서도 그렇지만 沃燭韻과 같이 併合된 韻部라 하더라도 각각 다른 韻母를 지닌다.

18) 上揭 論文의 “開口”를 “合口”로 개정.

19) 上揭 論文의 uo를 ou로 정정.

恤出黜術律 → 芻 /-iuʔ/

率 → 穀 /-uʔ/

質韻 /-jet/ (開口<sup>20</sup>) 細音)의 牙音은 吉字母韻 /-iaʔ/, 輕脣, 舌頭, 牙音 등 이  
의는 訖字母韻 /-iʔ/ 등 각각 開口細音 喉塞韻尾로 변화되었으며, 그리고 脣  
音은 모두 國字母韻 /-ueʔ/, 疏母는 穀字母韻 /-uʔ/ 등 각각 合口洪音 喉塞韻  
尾로 변화였다.

術韻 /-juet/ (合口細音)의 喻母는 聿字母韻 /-yʔ/, 喻母以外는 橘字母韻 /-yʔ  
/ 등 각각 合口細音 喉塞韻尾로 변화였고, 正齒二, 三等音과 舌上, 半舌 등  
音은 芻字母韻 /-iuʔ/ (合口<sup>21</sup>) 細音 喉塞韻尾)으로 변화였다.

櫛韻 /-(j)et/ (開口洪音)은 櫛字母韻 /-rʔ/ (開口洪音 喉塞韻尾)으로 변화였  
다.

#### 5. 勿迄韻<sup>22</sup>)

弗拂佛勿 → 穀 /-uʔ/

訖乞 → 訖 /-iʔ/

厥屈掘鬱 → 厥 /-yeʔ/ (牙音中心)<sup>23</sup>)

勿韻 /-juət/ (合口細音)의 輕脣音은 穀字母韻 /-uʔ/ (合口洪音 喉塞韻尾)으로  
변화하였고, 牙音은 厥字母韻 /-yeʔ/ (合口細音 喉塞韻尾)으로 변화였다.

迄韻 /-jat/ (開口<sup>24</sup>) 細音)은 訖字母韻 /-iʔ/ (開口細音 喉細韻尾)으로 변화였  
다.

20) 上掲 論文, “合口”를 “開口”로 정정.

21) 上掲 論文의 “開口”를 “合口”로 정정

22) 本稿에서 底本으로 하고 있는 《古今韻會舉要》에서는 入聲 月沒韻의 글자를  
앞 韻部인 勿迄韻 뒤에다 이어 놓아서 兩 韻部間에 뚜렷한 区分이 없어, 本稿에  
서는 碩士論文에서 分析한 《廣韻》에 따라 區分하였다.

23) 竺家寧의 上掲書에서는 厥字母韻에는 다만 月韻字만 다루고 있는데, 勿迄韻과  
月沒韻을 區分하는데 있어 錯誤가 있었던 것 같다.

24) 上掲 論文의 “合口”를 “開口”로 정정.

6. 月沒韻

- 齧闕厥 → 厥/-ye?/(牙音中心)  
 月越噉 → 玦/-ye?/(牙, 喉, 舌齒, 齒頭, 舌上, 正齒音)  
 訐揭<sup>25)</sup>竭歇 → 訐/-ie?/(全濁中心)  
 謁 → 結/-ie?/(清, 次濁中心)  
 髮伐幘 → 怛/-a?/(牙, 喉音이외)  
 骨窟兀對<sup>26)</sup>突訥勃沒卒猝猝忽紇滑 → 穀/-u?/

月韻/-juet/(合口細音)의 牙音中心의 글자는 厥字母韻/-ye?/(合口細音)과 訐字母韻/-ie?/(開口細音)으로 변하였고, 牙音의 魚母와 喉音의 影, 曉母 등 글자는 玦字母韻/-ye?/(合口細音 喉塞韻尾)으로 변하였고; 影母는 結字母韻/-ie?/등 開口細音 喉塞韻尾로 변하였다. 그리고 輕脣音은 怛字母韻/-a?/(開口洪音 喉塞韻尾)으로 변하였다.

沒韻/-uat/(合口洪音)의 모든 聲母는 모두 穀字母韻/-u?/(合口洪音 喉塞韻尾)으로 변하였다.

7. 曷末韻

- 葛渴辭末殺按喝曷 → 葛/-a?/(牙, 喉音)  
 括闊掇脫奪撥跋撮豁活 → 括/-ua?/  
 怛達達捺刺 → 怛/-a?/(牙, 喉音以外)

曷韻/-at/(開口<sup>27)</sup>洪音)의 牙, 喉, 齒頭, 重脣音과 末韻/-uat/(合口洪音)의 精母와 並母 등은 葛字母韻/-a?/(開口洪音 喉塞韻尾)으로 변하였다. 그리고 末韻/-uat/(合口洪音)의 모든 聲母는 括字母韻/-ua?/(合口洪音 喉塞韻尾)으로 변하였다.

25) 韓國 漢字音으로는 揭(계)음이므로 入聲字가 아니지만, 中國 中古音에는 /-t/韻尾를 가지는 入聲字이다.

26) 韓國의 漢字音으로는 對(대)로 入聲韻尾를 나타내지 않지만, 中國 中古의 字音에는 /-t/韻尾를 가진다.

27) 上揭論文의 “合口”를 “開口”로 정정.



로 변하였으며, 曷韻/-at/(開口洪音)의 半舌, 舌頭中心으로는 怛字母韻/-a?/(開口洪音 喉塞韻尾)으로 변하였다.

### 8. 黠轄韻

曷劫瞎 → 曷/-ia?/

獺八拔札察刹殺乙 → 怛/-a?/(牙, 喉音以外)

刮別茁刷滑 → 刮/-ua?/

黠韻/-at/과 轄韻/-æt/등 開口洪音의 牙, 喉音中心의 글자는 曷字母韻/-ia?/(開口細音 喉塞韻尾)으로 변하였으며, 舌頭, 重脣, 正齒二等音中心의 글자는 怛字母韻/-a?/(開口洪音 喉塞韻尾)으로 변하였다. 그리고 黠韻/-uat/과 轄韻/-uæt/등 合口洪音은 刮字母韻/-ua?/(合口洪音 喉塞韻尾)으로 변하였다.

### 9. 屑薛韻

結契<sup>28)</sup>窒鐵斃別警蔑節切屑薛浙哲徹設噎嶺暫列熱 → 結/-ie?/(清, 次濁中心)

揭子偈傑別截徹舌 → 訐/-ie?/(全濁中心)

玦決缺雪絕拙茁綴說刷抉血穴悅劣 → 玦/-ye?/(牙, 喉, 舌齒, 齒頭, 舌上, 正齒音)

屑韻/-iæt/(開口細音)의 牙, 舌頭, 重脣中心의 글자와 薛韻/-jæt/(開口<sup>29)</sup>細音)의 輕脣, 正齒, 舌上中心의 글자는 結字母韻/-ie?/(開口細音 喉塞韻尾)으로 변화되었으며, 屑韻/-iæt/의 齒頭中心의 글자와 薛韻/-jæt/의 牙音中心인 글자는 訐字母韻/-ie?/(開口細音 喉塞韻尾)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屑韻/-iuæt/(合口<sup>30)</sup>細音)과 薛韻/-juæt/(合口細音)은 玦字母韻/-ye

28) 契(계)는 中國 中古에서는 /-t/韻尾가 있는 入聲字였다.

29) 上揭 論文의 “合口”를 “開口”로 정정.

2/(合口細音 喉塞韻尾)으로 변화되었다.

#### 10. 藥鐸韻

脚却噓虐灼著藥杓約詭藥略弱 → 脚/-yoʔ/(齒頭音以外)

郭廓霍縛覆 → 郭/-uoʔ/

鬮 → 鬮/-yaʔ/

各恪醵託鐸搏泊莫作錯索昨惡鶴洛 → 各/-auʔ/

爵洛削嚼 → 爵/-yoʔ/(齒頭音)

藥韻/-jak/(開口<sup>31</sup>)細音)의 牙, 正齒三等, 舌上, 喉音中心의 글자는 脚字母韻/-yoʔ/(合口細音 喉塞韻尾)으로 변화하였으며, 齒頭音中心의 글자는 爵字母韻/-yoʔ/(合口細音 喉塞韻尾)으로 변화하였다. 藥韻/-juak/(合口細音)의 喉, 輕唇音과 鐸韻/-uak/(合口洪音)은 郭字母韻/-uoʔ/(合口洪音 喉塞韻尾)으로 변화하였고, 藥韻/-juak/의 牙音中心의 글자는 鬮字母韻/-yaʔ/(合口細音 喉塞韻尾)으로 변화하였으며, 또 鐸韻/-ak/(開口<sup>32</sup>)洪音)은 各字母韻/-auʔ/(開口洪音 喉塞韻尾)으로 변화하였다.

#### 11. 陌麥昔韻

格客格核<sup>33</sup>) → 格/-aiʔ/(見, 溪, 匣, 曉母)

號馘獲劃畫 → 號/-uaiʔ/

額百擊<sup>34</sup>)霸白陌窄摘策索宅 → 額/-aiʔ/(見, 溪, 匣, 曉母以外)

戟隙劇逆僻闕積刺昔籍席尺釋隻射石益譚 → 訖/-iʔ/

役 → 聿/-yʔ/(喻母)

碧 → 國/-ueʔ/(曉母以外)

30) 上揭 論文의 “開口”를 “合口”로 정정.

31) 上揭 論文의 “合口”를 “開口”로 정정.

32) 上揭 論文의 “合口”를 “開口”로 정정.

33) 上揭 論文의 ‘覆’字는 誤字임. ‘核’字로 정정.

34) 上揭 論文의 ‘擊’字는 誤字임. ‘擊’字로 정정.

陌韻/-ək/과 麥韻/-æk/등 開口洪音의 見, 溪, 匣母 등 글자는 格字母韻/-aiʔ/(開口洪音 喉塞韻尾)으로 변하였고, 見, 溪, 匣母 以外 글자는 額字母韻/-aiʔ/(開口洪音 喉塞韻尾)으로 변하였다. 陌韻/-uək/과 麥韻/-uæk/ 등의 合口洪音은 號字母韻/-uaiʔ/(合口洪音 喉塞韻尾)으로 변하였으며, 陌韻/-jek/과 昔韻/-jɛk/등 開口<sup>35)</sup>細音은 訖字母韻/-iʔ/(開口細音 喉塞韻尾)으로 변하였다. 그리고 昔韻/-juɛk<sup>36)</sup>/(合口細音)은 聿字母韻/-yʔ/(合口細音 喉塞韻尾)으로 변하였으며, 昔韻/-juɛk/(合口細音)은 國字母韻/-ueʔ/(合口洪音 喉塞韻尾)으로 변하였다.

### 12. 錫韻

激喫檄 → 吉/-iəʔ/

殖覽<sup>37)</sup> → 橘/-yʔ/(喻母以外)

的摘狄寂歷 → 訖/-iʔ/

錫韻/-jek/(開口<sup>38)</sup>細音)은 吉字母韻/-iəʔ/(開口細音 喉塞韻尾)으로 변하였고, /-iuek/(合口<sup>39)</sup>細音)은 橘字母韻/-yʔ/(合口細音 喉塞韻尾)으로 변하였으며, 또 /-iek/(開口細音)은 訖字母韻/-iʔ/(開口細音 喉塞韻尾)으로 변하였다.

### 13. 職德韻

逐溺壁霹覓績威錫極疑<sup>40)</sup>卽息職陟勅識食直匿殖億翊力 → 訖/-iʔ/

國逼北副匄墨域或 → 國/-ueʔ/(曉母以外)

洫 → 洫/-ueʔ/(曉母)

黑劾 → 黑/-eiʔ// -eʔ/(曉, 匣母)

35) 上揭 論文의 "合口"를 "開口"로 정정.

36) 上揭 論文의 /-t/를 /-k/로 정정.

37) '覽(예)'字는 中國 中古音에서는 /-k/韻尾를 가진 入聲字이다.

38) 上揭 論文의 "合口"를 "開口"로 정정.

39) 上揭 論文의 "開口"를 "合口"로 정정.

40) '疑(의)'字 中國 中古音에서는 /-k/韻尾가 있는 入聲字임.

克德貸<sup>41)</sup>特別塞賊側測色勒 → 克/-ei?// -e?/(曉, 匣母以外)

職韻/-jak/(開口<sup>42)</sup>細音)의 牙, 舌上, 齒頭, 正齒三等, 喉音中心인 글자는 訖字母韻/-i?/(開口細音 喉塞韻尾)으로 변화하였고, 重脣, 輕脣音과 職韻/-juak/(合口細音)의 爲母, 그리고, 德韻/-uak/(合口洪音)은 모두 國字母韻/-ue?/(合口洪音 喉塞韻尾)으로 변화하였다. 職韻/-juak/의 曉母 글자는 泚字母韻/-ue?/(合口洪音 喉塞韻尾)으로, 德韻/-ak/(開口洪音)의 曉, 匣母 글자는 黑字母韻/-ei?/(開口洪音 喉塞韻尾)으로 변화하였으며, 德韻/-ak/의 牙, 舌頭, 齒頭中心인 글자와 職韻/-jak/의 正齒二等中心인 글자는 모두 克字母韻/-ei?/(開口洪音 喉塞韻尾)으로 변화하였다.

#### 14. 緝韻

急泣及集葺潔習執塾濕塾十邑吸揖翊<sup>43)</sup>立入 → 訖/-i?/

級 → 櫛/-r?// -ə?/

緝韻/-jep/(開口<sup>44)</sup>細音)의 莊, 疏母 글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訖<sup>45)</sup>字母韻/-i?/(開口細音 喉塞韻尾)으로 변화하였으며, 莊, 疏母 글자는 櫛字母韻/-r?/(開口洪音 喉塞韻尾)으로 변화하였다.

#### 15. 合盍韻

閻雜邑合闔 → 葛/-a?/(牙, 喉音)

答塔榻沓納級雜拉臘 → 怛/-a?/(牙, 喉音以外)

41) '貸(대)'字 역시 中國 中古音에서는 /-k/韻尾가 있는 入聲字임.

42) 上掲 論文 "合口"를 "開口"로 정정.

43) '翊(익)'字는 中國 中古音에서는 /-k/ 뿐만 아니라, /-p/韻尾도 가지는 入聲字임.

44) 上掲 論文의 "合口"를 "開口"로 정정.

45) 上掲 論文의 '訖'을 '訖'로 정정.

合韻/-ap/과 盍韻/-ap/등 開口<sup>46)</sup>洪音의 牙, 喉音中心의 글자는 葛字母韻 /-aʔ/(開口洪音 喉塞韻尾)으로 변화였고, 또 舌頭, 半舌中心의 글자는 恒字母韻/-aʔ/(開口洪音 喉塞韻尾)으로 변화였다.

#### 16. 葉帖業韻

劫拾啻業涉葉 → 訃/-ieʔ/(全濁音中心)

頰怯帖牒捻接睫妾變捷輒攝齋馱協獵 → 結/-ieʔ/(清, 次濁音中心)

葉韻/-jæp/과 業韻/-jep/<sup>47)</sup>등 開口<sup>48)</sup>細音의 濁音中心의 글자는 모두 訃字母韻/-ieʔ/(開口細音 喉塞韻尾)으로 변화였으며, 清, 次濁音中心의 글자와 帖韻/-jɛp/(開口細音)은 모두 結字母韻/-ieʔ/(開口細音 喉塞韻尾)으로 변화였다.

#### 17. 洽狎乏韻

夾甲恰陝<sup>49)</sup>狎 → 戛/-iaʔ/

法乏挿眨<sup>50)</sup>押 → 恒/-aʔ/(牙, 喉音以外)

洽韻/-ap/과 狎韻/-ɛp/등 開口洪音의 牙, 喉音字, 그리고 乏韻/-juɛp/(合口細音)의 溪母字는 모두 戛字母韻/-iaʔ/(開口細音 喉塞韻尾)으로 변화였으며, 洽韻/-ap/과 狎韻/-ɛp/의 舌上, 正齒二等音 中心인 字, 그리고 乏韻/-juɛp/의 輕唇音字는 모두 恒字母韻/-aʔ/(開口洪音 喉塞韻尾)으로 변화였다.

이상과 같이 分析한 결과 29字母韻의 實상은 다음 <表1>과 같다.

46) 上揭 論文의 “合口”를 “開口”로 正正.

47) 上揭 論文의 /-jɛt/를 /-jɛp/로 正正.

48) 上揭 論文의 “合口”를 “開口”로 正正.

49) ‘狎’의 ‘합’으로도 읽혀짐.

50) ‘眨(瞼)’字는 韓國 漢字音에서는 ‘ㄹ’ 받침이지만 中古 中國에서는 /-p/韻尾을 가진 入聲字였다.

&lt;表1&gt;

	新體系入聲29韻部	傳統體系17韻部
1	穀	屋,沃(k) 質,勿,月(t)
2	芻	屋,燭(k) 術,勿迄(t)
3	各	覺,鐸(k)
4	覺	覺(k)
5	脚	藥(k)
6	爵	藥(k)
7	郭	覺,藥鐸(k)
8	鑿	藥(k)
9	克	職德(k)
10	黑	德(k)
11	訖	質,迄(t) 陌昔,錫,職(k) 緝(p)
12	吉	質(t) 錫(k)
13	櫛	櫛(t) 緝(p)
14	國	質(t) 昔,職德(k)
15	洫	職(k)
16	橘	術(t) 錫(k)
17	聿	術(t) 昔(k)
18	額	陌麥(k)
19	格	陌麥(k)
20	號	陌麥(k)
21	怛	曷,黠轄,月(t) 合盍,洽狎乏(p)
22	葛	曷末(t) 合盍(p)
23	夏	黠轄(t) 洽狎,乏(p)
24	訐	屑薛,月(t) 葉業(p)

《韻會》29字母韻인 新體系에서는 傳統體系에서 /-p/, /-t/, /-k/ 등 韻尾의 구분으로 인해 구분되는 韻部는 이미 韻尾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같은 「字母韻」에 속하고 있다. ex) 訖字母韻에는 /-t/(質, 迄), /-k/(陌, 昔, 錫, 職), /-p/(緝) 등 韻尾가 모두 들어 있고; 그리고 毅, 芻, 吉, 國, 橋, 聿 등 字母韻에는 /-k/, /-t/ 등 兩 韻尾; 櫛, 怛, 葛, 夏, 訐, 結 등 字母韻에는 /-t/, /-p/ 등 韻尾가 각각 함께 들어 있다

또한 介音과 聲母에 따라 韻部를 새로이 설정, 細分化하여 傳統體系에서는 한 韻部에 있는 韻을 나누어 놓기도 했다. ex) ① 聿字母韻/-yʔ/(喻母字)과 橋字母韻/-yʔ/(喻母字以外), ② 厥字母韻/-yeʔ/(牙音)과 玦字母韻/-yeʔ/(牙, 喉, 舌齒, 舌上, 齒頭, 正齒), ③ 訐字母韻/-ieʔ/(全濁中心)과 結字母韻/-ieʔ/(清, 次濁中心); ④ 怛字母韻/-aʔ/(牙, 喉音以外)과 葛字母韻/-aʔ/(牙, 喉音), ⑤ 脚字母韻/-yoʔ/(齒頭以外)과 爵字母韻/-yoʔ/(齒頭音), ⑥ 格字母韻/-aiʔ/(見, 溪, 匣, 曉母)과 額字母韻/-aiʔ/(見, 溪, 匣, 曉母以外), ⑦ 國字母韻/-ueʔ/(曉母以外)과 沚字母韻/-ueʔ/(曉母字), ⑧ 黑字母韻/-eiʔ/(曉, 匣母字)과 克字母韻/-eiʔ/(曉, 匣母字以外) 등은 모두 聲母에 의해 區分되어진 것이고; 括字母韻/-uaʔ/과 刮字母韻/-uaʔ/은 介音의 차이로 인해 區分되어진 것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外的體系인 17韻部에서 수록하고 있는 韻尾/-p/, /-t/, /-k/는 사실 이미 뚜렷한 구분이 없다는 점이다. 混合되고, 分裂된 상황은 대체로 12字母韻은 단독으로 /-k/韻尾를 지니고, 4字母韻 단독으로 /-t/韻尾를 지니며, 6字母韻은 /-t/와 /-p/의 韻尾, 또 다른 6字母韻은 /-t/와 /-k/韻尾, 나머지 1字母韻은 /-p/,-t/,-k/로 각각 혼합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p/,-t/,-k/의 연변을 잘 나타낸 회귀한 韻書로 꼽을 수 있겠다. /-p/,-t/,-k/가운데서 특히 /-p/韻尾를 단독으로 나타낸 「字母韻」은 없을 뿐 아니라, /-p/와 /-k/의 혼합을 나타낸 「字母韻」도 없다. 따라서 /-p/, /-t/, /-k/韻尾中에서 /-p/韻尾가 제일 일찍 소실되거나 /-t/韻尾와 혼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p/, /-t/, /-k/가 混合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韻會》에서는 分

明 入聲字를 平上去聲과 區分하여 새로운 「字母韻」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보아, <韻會>에서는 아직 入聲이 存在하는 것이 사실이며, 不透明한 混合狀態는 入聲이 완전히 消滅되기 前 段階로 볼 수 있고, 이 段階의 入聲은 喉塞韻尾/-ʔ/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럼, /-p/, /-t/, /-k/韻尾와 喉塞韻尾의 關係를 海南方言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海南方言에는 喉塞韻尾/-ʔ/를 지닌 入聲韻母가 있는데, 口語와 一般讀書音에서는 喉塞韻尾/-ʔ/이지만, 그러나 文言文讀書音에서는 /-p/,-t/,-k/韻尾가 되는 것이 特徵的이라 할 수 있겠다. 梁獻剛은 <海南方言中的喉塞音>에서 32개의 例를 들어 놓은 것을 보면 主要母音이 舌位가 비교적 낮고, 口腔의 열림이 큰 入聲韻母는 /-p/,-t/,-k/와 /-ʔ/의 讀音을 다 갖는 현상을 쉽게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그의 例에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韻尾가 /-ʔ/이나 아니면 /-p/, /-t/, /-k/이나에 의하여 介音, 主要母音이 달라진다는 점인데, 表2에서는 달리 워혀지는 부분만 수록하여 간략히 살펴보겠다<sup>51)</sup>.

&lt;表2&gt;

擦葛渴	-uaʔ	-at	郭	-ueʔ	-uak
歇	-eʔ	-iet	學	-oʔ	-iuk
雪	-oiʔ	-uat	白格	-eʔ	-ak
說	-eʔ	-uat	摘	-iaʔ	-lk
缺血	-ueʔ	-iet	惜	-oiʔ	-lk
薄莫託	-oʔ	-vk	石尺	-ieʔ	

또한, <韻會>가 元代 實際音을 反映한다면, 과연 어떤 方言의 語音을 반영하고 있는지가 重要 關鍵이 되는 바, 이에 대하여 學者들간에는 흔히 당시 元代 北方의 實際讀書音이라고 간주하거나, 혹은 黃公紹, 熊忠의 故鄉인 現 福建省 邵武語音인 南方音의 色彩가 짙다고 본다. 사실 元代 北方

51) 梁獻剛, <海南方言中的喉塞音>, 464쪽 참조.



實際讀書음이냐, 아니면 南方음이냐; 南方음이라면 竺家寧이 주장하는 邵武음이냐, 아니면 또 다른 方言음이냐에 대한 問題는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課題라 보며, 本人이 言及하고자 하는 것은 南方음이라면, 竺家寧의 主張도 理解力을 갖지만, 南方의 邵武음 이외에도, 南宋의 首都였던 杭州音의 反映 또한 提示될 만하다고 여기며, 그 原因은 다음과 같다.

첫째: 邵武는 福建省 西北 邊疆地域에 자리잡고 있는 바, 이 地域方言의 分布에 關하여 竺家寧은 現在 喉塞韻尾를 保存하고 있는 閩北方言인 福州 말에 속한다<sup>52)</sup>고 하지만, 謝雲飛는 현재 /-p/, /-t/, /-k/등 韻尾를 모두 保存하고 있는 贛語地域으로 보고 있으므로<sup>53)</sup> 竺家寧의 主張을 단정하기는 힘들다.

둘째: 《韻會》 平聲 麻韻에서는 “牙”字의 聲母를 「角次濁音」이라고 註하고, 뒤에는 또 「吳音“牙”角次濁音」이라고 案을 달고 있어, 지금의 吳方言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한편 吳方言의 語音을 反映하였다면, 當時 吳方言地域에서 活動中心이 되는 首都圈 地域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南宋의 首都 杭州로 보아도 妥當할 것이다.

셋째: 北宋이 外民族 金の 侵入을 받아 江南으로 옮겨와서 세운 南宋(A. D. 1127 - A.D. 1279)은 약 150年間이나 杭州를 國都로 삼았다. 그 동안 杭州語音은 각 方面으로 큰 影響을 미쳤을 것으로 보며, 南宋 역시 外民族 元에게 亡한 후, 南宋 文人들은 元의 政治, 文化, 經濟 등 中心인 華北地域으로 가지 않고, 여전히 杭州 등 南方地域에 머물며, 活動을 해 왔을 뿐 아니라, 北方의 文人, 貴族 및 官兵 등 역시 南遷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sup>54)</sup>. 그리고 北宋의 首都 開封, 南宋의 首都 杭州 및 金, 元의 首都 北京은 大衆

52) 竺家寧 上揭書, 98쪽 참조.

53) 謝雲飛, 《中國聲韻學大綱》, 84쪽 참조.

入聲에는 아직 中古의 /-p/, /-t/, /-k/韻尾를 保存하고 있는데, 贛語의 特徵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地域分布에 있어서 분명하지 않다. 代表地域인 南昌語의 入聲은 /-t/, /-k/韻尾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구별하지 않거나, 또는 喉塞韻尾로 읽는다.

54) 元帝國은 中國을 統一한 후 人種의 等級을 4等級으로 나누었고, 그중 南宋統治下의 南方漢人은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하였다.

社會의 中心地였으므로, 그 當時 庶民들의 말이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었고, 또한 南方의 中心地인 杭州音을 基準으로 韻書를 짓는 것은 결코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특히, 元 南曲은 杭州를 中心으로 發達되어 通俗性을 지니는 口語文學이란 點에서도 理解 할 수 있다.

### III. 結論

宋代는 都市의 發達, 經濟의 膨脹과 商業政策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社會를 이루었는데, 그러나, 文人들은 여전히 宋代文學의 主流인 詩, 詞를 선호하여, 傳統韻書體系를 벗어나, 當時 實際語音을 反映하는 韻書를 감히 내놓을 수가 없었다.

現實社會와 文人의 矛盾된 狀況은 1279년 南宋의 滅亡으로부터 13년, 또는 18년만에 나온 《古今韻會》(元 至元29年)와 《古今韻會舉要》(元 大德元年) 역시 노골적으로 傳統韻書를 저버릴 수가 없어, 겉으로는 傳統韻書를 踏襲한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 內的으로는 「以上屬某字母韻」이란 글귀와 같이 「字母韻」을 만들어 새로운 語音體系를 반영하고 있다.

II章에서 外形 17韻部를 分析한 結果, 內形 29字母韻과의 關係는 ① 傳統體系에서 韻尾/-p/, /-t/, /-k/의 차이로 구분되는 韻部는 新體系에서는 韻尾 /-p/, /-t/, /-k/가 混合되어 같은 「字母韻」에 속한다. ② 介音과 聲母에 따라 韻部를 새로이 設定, 細分化하여 傳統體系에서는 한 韻部에 속하는 韻을 또 나누어 놓았다. ③ 특히 新體系 29字母韻에서는 /-p/韻尾를 단독으로 나타내거나, /-p/와 /-k/의 混合을 나타낸 字母韻을 設定하지 않았다. 따라서, 3韻尾가운데에서 /-p/韻尾가 제일 먼저 소실되거나, /-t/韻尾와 混合되었음을 꿰뚫어 알 수 있다. 결국 《韻會》의 /-p/, /-t/, /-k/韻尾는 混合되어, 入聲이 完全히 消失되기 前段階인 喉塞韻尾/-ʔ/로 變化되었다.

그밖에, 《韻會》의 語, 字音의 根據를 둘러싸고 學者사이에는 흔히 元代

北方의 實際 讀書音이라고 간주하는 반면 또 黃公紹, 熊忠의 故鄉인 現 福建省 邵武語音인 南方音의 色彩가 짙다는 설도 있다. 元代 北方 實際讀書音이나, 아니면 南方音이나; 南方音이라면, 邵武音이나, 아니면 또 기타 다른 地域音이나에 대한 問題는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課題이며, 本人이 言及하고자 하는 것은 南方音이라면, 竺家寧의 주장도 어느 정도 理解力을 갖지만, 南方 邵武외의, 南宋의 首都였던 杭州音 또한 考慮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理由는 ① 邵武는 福建省 西北 邊疆地域에 자리잡고 있는 바, 이 地域方言의 分布에 關하여 竺家寧은 現在 閩北方言인 福州말에 속한다고 하지만, 謝雲飛는 현재 贛語地域으로 보고 있으므로, 竺家寧의 主張을 단정하기는 힘들다. ② 《韻會》 平聲 麻韻에서는 “牙”字의 聲母를 「角次濁音」이라고 註하고, 뒤에는 또 「吳音“牙”角次濁音」이라고 案을 달고 있어, 그 當時 吳方言地域의 중심이 되는 南宋의 首都 杭州로 보아도 妥當할 것이다. ③ 北宋이 外民族 金の 侵入을 받아 江南으로 옮겨와서 세운 南宋(A.D. 1127 - A.D. 1279)은 약 150年間이나 杭州를 國都로 삼아 온 동안 杭州語音은 自然的으로 큰 影響을 미쳤을 것으로 보며, 南宋 역시 外民族 元에게 亡한 후, 南宋 文人들은 여전히 杭州 등 南方地域에 머물었고, 北方의 文人, 貴族 및 官兵 등 역시 南遷하였다. 또한, 通俗적이고, 口語의인 文學이 盛行했으므로 庶民들의 말이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었으니, 南方의 中心地인 杭州音을 基準으로 韻書를 지었다고 假想하더라도 결코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特히, 元代 南曲은 杭州를 中心으로 發達된 口語文學이란 點에서도 理解 할 수 있겠다.

<參考文獻>

- 熊忠, 《古今韻會舉要》, 亞細亞 文化社, 서울, 1975  
 竺家寧, 《古今韻會的語音系統》, 臺灣學生書局印行, 臺北, 1986  
 建國大, 《東國正韻》, 建國大學校出版部, 서울, 1979

- 신봉승, <訓民正音>, 금성 출판사, 서울, 1993
- 中國地圖出版社, <袖珍中國地圖冊>, 中國地圖出版社, 上海, 1990
- 王力, <漢語史稿>, 中華書局, 北京, 1988
- 董同龢, <漢語音韻學>, 文史哲出版社, 臺北, 1977
- 張世祿, <廣韻研究>, 商務印書館發行, 臺灣, 1963
- 謝雲飛, <中國聲韻學大綱>, 蘭臺書局, 臺北, 1983
- 謝雲飛, <中國聲韻學大綱>, 學生書局, 臺北, 1987
- 袁家驊等, <漢語方言概要>, 文字改革出版社, 北京, 1960
- 華正書局, <中國文學發展史>, 華正書局, 臺北, 1985
- 申採湜, <東洋史概論>, 三英社, 서울, 1993
- 작고 제르네著, 李東潤譯, <東洋史通論>, 法文社, 서울, 1985
- 錢玄同, <文字學音篇>, 北京大學出版, 北京, 1918
- 林尹, <文字學概說>, 正中書局印行, 臺北, 1986
- 梁猷剛, <海南方言中的喉塞音>, 中國語文 제6기, 1964
- 王碩荃, <韻會音系研究簡論>, 探索集 제1집, 河北教育出版社, 河北, 1990
- 王碩荃, <韻會音系基礎初探>, 漢語言學國際學術研討會, 武漢, 1991
- 王玉枝, <『古今韻會舉要』와 『廣韻』의 入聲字 比較研究>, 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1989
- 王玉枝, <『蒙古字韻』의 製作과 有關韻書>, 中國人文科學研究會 제12집, 1993
- 王玉枝, <『蒙古字韻』의 音韻體系에 關한 研究>, 中國人文科學研究會 제13집, 1994